

# IMF시대의 정보이용습관

정보통신 분야에도 거품이 엄청났던 모양이다. '수입이 줄어들니까 우선 가게에서의 삭감항목 제1호가 전화요금인가 봅니다. 우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의 사용이 대폭 줄어 들었다'면서 수입감소를 염려하는 소리를 들은 일이 있다. 그렇게 널리 사용되던 무선호출기(속칭 삐삐)의 해지가 엄청나서 사업자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고 들었다.

시티폰이라는 걸기만 하는 이동전화 사업은 갑자기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 사업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사업권의 반납사태가 나서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모양이다. 거기에도 이동전화 사업도 전만 같지 않다고 한다. 그판에 새로운 CDMA 기술로서 PCS 전화 사업자가 무려 세군데나 추가로 더 생겼는데 같은 시장을 다섯개 회사가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혈안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무선데이터 사업자도 3개회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1개처에서는 사업권을 반납하고 또 1개처에서는 사업을 중지하였다는 소문도 들었다.

IMF위기만 아니었다면 이러한 거품을 자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거품 현상을 자각하게 하여 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과연 정보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던가를 재삼 반성하여 볼 필요가 있다.

PC통신만 해도 그렇다. PC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몇백개처는 되는가 보지만, 그중에서도 천리안, 유니텔, 하이텔, 나우누리 등 4개 통신망이 주류를 이루

고 있다. 그러나 각 통신망이 모두 독특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영역넓히기에 혈안이다. 하기가 각각의 통신망은 스스로의 독립왕국처럼 언어(명령어)가 제 각각이며 각각의 사용자(국민)를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이용습관이 모두 달라서 둘 이상의 통신망 사용은 마치 2개국어 이상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것 같으며, 각각의 독특한 정보원(데이터베이스)을 기반으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때문에 어떤 이용자는 둘 이상, 심지어는 인터넷까지 합쳐서 5-6개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도 제법 되는 것 같다.

이는 마치 한 가정에서 두가지 이상의 신문을 구독하는 것과 비슷하며, 또한 여러개의 TV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공중파 방송뿐 아니라 케이블 TV도 속속 생겨나서 이제는 선택하는데 시간이나 정력이 너무 많이 소모된다. 라디오도 마찬가지다. AM이니 FM이니 해서 방송국마다 채널이 너무나 많아 주파수 선택에 곤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화와 같은 개인통신 수단도 그렇다. 글썽 개인적인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전화번호는 몇개나 될까? 머리 좋은 사람은 아마 100개정도 암기하고 있을까? 더욱이 필자같이 숫자 외우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전화번호 외우기가 가장 곤혹스럽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첩이라는 기억보조 책을 쓰기도 한다. 요즘

에는 전자수첩이란게 나와서 쓰임새가 있는 것 같지만, 필자가 전자수첩을 사용하여 보니깐 일반수첩에 사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넣는데 불과 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전자수첩에 입력하려면 보통 10초쯤 걸린다. 일단 입력이 끝나면 쓰기가 편리하지만 입력하기가 귀찮아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다. 전자수첩 속에 영어 사전이나 한자사전 같은 걸 넣어 두고 데이터뱅크라는 이름으로 전자수첩을 판매하고 있다.

필자는 해외출장을 갈 때마다,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가서 호텔방에서 한국의 PC통신망에 연결하여 글을 보내는 일을 자주 하였으나, 그래도 한국내의 뉴스를 보지 못해서 항상 적막감을 느껴 왔었다. 어찌다가 하루이틀 서울을 떠나서 서울소식을 차단한 채로 시골 분위기를 만끽하다 보면, 금방 서울정보의 차단에서 적막감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외국출장시는 국내에서 전화를 해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외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하는 수가 많다. 국제전화 요금이 부담이 되어서이다. 이제 IMF시대가 되어서 해외출장도 거품을 빼버려서 정보이용의 습관도 엄청나게 달라졌다.

필자도 IMF시대를 맞이하여 정보이용 습관을 고쳐야 했다. 먼저 아이들이 사용하던 삐삐도 해약하고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전화회선도 반으로 줄였다. 시외전화 통화수도 줄였고, 국제전화는 걸어오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전화사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는 것도 문제이고 요금도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전화를 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이다. 막대한 투자로 때로는 중북투자자로 비슷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특정 PC통신망에 담아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의 선택에도 곤혹스러움을 당하고 있다. 이 통신망마저 전국에 망라적이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산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지만...

글자, 소리, 그림, 영상 등의 정보매체가 멀티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되고 있지만 소리통신 마저도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니, 다수의 이용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시장의 형성이 어렵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망각한 사업추진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면서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수많은 통신사업자, 통신망 사업자,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모두 서로가 표준화라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용습관이 각 사업자마다 모두가 달라서 거품빼기를 하거나 하면 모두가 망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정보이용의 습관은 오랜 기간동안 한가지 방법으로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각 사업자의 시스템마다 다른 정보이용 습관을 따로 따로 형성하려는 노력은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

한가지 예를 생각하여 본다. 필자는 필자 나름대로의 한글쓰기 습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15년전에 한번 전혀 다른 시스템 이용의 습관으로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으며, 지금도 오타의 가장 큰 원인이 옛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한번 버릇으로 굳어버리면 한평생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하였겠는가?

정보통신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습관화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사전에 모두가 표준화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모든 이용자를 따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이용자를 확보하였다고는 하지만 IMF거품에 불과하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상명대학교 강사, KS심의회위원회 정보산업부회 위원장〉